

遵行退溪先生歸鄉之路行過貞敬夫人佳城時告由文

(퇴계선생 귀향길을 따라오다가 정경부인의 묘역을 지날 때의 고유문)

維歲次壬寅三月甲申朔十

五日戊戌貞敬夫人先公

十七代孫慶尙國立大學校

名譽教授許捲洙敢昭告于

先師退陶李先生貞敬夫人

金海許氏之靈.

伏以,

유세차 임인(2022)년 삼월 갑신삭

십오일 무술에 정경부인

선친의 17대손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허권수는,

선사 퇴도이선생의 정경부인 김해허씨의

존령에게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엿드려 생각하나이다.

金官許門(금관허문), 김해허씨의 집안에,

有女貞淑(유녀정숙). 곧고 착한 따님 있었나니,

嫺雅有儀(한아유의), 얹전하고 고상하며 법도 있어,

君子好匹(군자호필). 군자의 좋은 배필이 될 만했습니다.

天定嘉緣(천정가연), 하늘이 아름다운 인연 정해 주었나니,

良人是孰(양인시숙)? 훌륭한 신랑감은 누구였습니까?

溫惠李郎(온혜리랑), 온혜(溫惠) 땅 이씨 집안의 낭군,

身修學熟(신수학숙). 몸은 수양 되었고 학문 푹 익었습니다.

生年旣同(생년기동), 태어난 해가 이미 같은데,

月日亦埒(월일역랄). 달과 날까지도 같았습니다.

普天之下(보천지하), 넓은 하늘 아래서,

斯緣可覓(사연가역)? 이런 인연 찾을 수 있겠습니까?

相敬相和(상경상화), 서로 공경하고 서로 화합하여,

無比琴瑟(무비금슬). 비할 데 없을 정도로 금슬 좋았습니다.

內助浹洽(내조협합), 충분히 내조하였기에,
無憂治學(무우치학).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嚴霜酷襲(엄상혹습), 차가운 서리 매섭게 덮쳐 와,
馨蘭倏折(형란속절). 향기로운 난초 갑자기 꺾였습니다.
天與何豐(천여하풍)? 하늘은 어찌 하여 풍부한 자질 주었으면서,
天壽何嗇(천수하색)? 수명은 그렇게도 애끼셨는지요?

茫茫蒼天(망망창천), 아련한 푸른 하늘에,
何理欲質(하리욕질). 이 무슨 이치인지 묻고자 하나이다.
先生悵酸(선생창산), 선생의 슬프고 쓰라린 마음,
可推而測(가추이측). 미루어 짐작이 되나이다.

往來京陶(왕래경도), 서울과 도산을 오가시면,
程經墓域(정경묘역). 길이 이 묘역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婦家仍留(부가잉류), 처가가 그대로 남아 있어,
顧念無斁(고념무득). 돌보아 생각하는 정성 줄지 않았습니다.

未艾之情(미애지정), 다하지 못 한 정이야,
難表筆舌(난표필설). 붓이나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至情無文(지정무문), '지극한 심정은 글로 표현할 수 없다' 는
古語不忒(고어부득).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遵先生路(준선생로), 선생 가시던 길 따라 가다보니,
今歲亦歷(금세역력). 올해도 묘소 지나게 되었습니다.
拜展佳城(배전가성), 절하고 살피고서,
奠告由式(전고유식). 예법에 맞추어 음식 드리고 고유하나이다.

夫婦良範(부부양범), 부부간의 좋은 법도,
於斯可學(어사가학).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降格賜誨(강격사회), 강림하시어 가르침을 내려 주시면,
敬承療俗(경승료속). 경건하게 받들어 풍속을 고치겠습니다.
退陶李先生 貞敬夫人 先公17代孫 許捲洙 謹製.